

## 제6장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조성

### 제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 체계와 방향
2. 학교통일교육
3. 사회통일교육

### 제2절 통일홍보

1. 국내 홍보
2. 해외 홍보
3. 행정정보 공개

###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1. 여론조사 실시
2. 자문기구 운영
3. 민간자문활동 지원

### 제4절 북한자료개방 추진

1. 북한자료 공개 확대
2.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 제1절 통일교육

## 1. 통일교육체계와 방향 정립

### 가.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 통일, 한·중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1월 5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나.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는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6대 중점추진과제로 ① 종합적·체계적 통일교육 실시기반 구축 ②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③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④ 대중매체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⑤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 강화 ⑥ 통일교육 실시 체계 정립을 선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교육기관의 2000년 통일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및 기본교재의 발간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에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성과를 반영하고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이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주요사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요원의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재로 「통일연구참고자료」를 발간·활용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청각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 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 추진

인터넷의 발달로 대표되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매체를 확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 개설 추진은 첫째, 직접교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을 확장, 둘째, 통일교육에 관한 통합 「정보자료지원센터」로서 기능 확충, 셋째, 일선 통일교육요원의 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①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 교육정보 인프라 조성 ② 통일/북한 관련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 지향 ③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자료 제공 ④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홈페이지를 개발·시험가동하고 2001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2001년 하반기부터는 명실상부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교육 정보화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통합을 위한 열린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2. 학교통일교육

통일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초·중·고등 10개교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지정한 18개의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 북한관련 통일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통일교육관련 발표회 실시, 판문점 견학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통일문제연구소에 보조금 지급 등 지원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52개 대학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1999년 말 현재 1998년 보다 2개 연구소가 증설되어, 전국 82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는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여 왔다. 1999년에는 ‘2000년대 남북한의 지역간 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군산에서 열렸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과는 관동대, 고려대, 선문대, 동국대, 명지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 〈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황 〉

( '99. 12 현재 )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강릉대	통일문제	김건석	동의대	법정	이강웅
강원대	사회과학	홍성렬	명지대	사회과학	조병륜
건국대	민족통일	양병희	목포대	통일문제	서창호
경기대	민족문제	노태구	배재대	통일문제	김혁동
경남대	극동문제	윤대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채상식
경북대	평화문제	엄재호	부산외대	국제문제	김중현
경산대	평화전략	권기수	상명대	통일문제	조성대
경상대	통일문제	황갑진	상지대	사회과학	공제욱
경성대	사회과학	공보경	서강대	동아	정인재
경원대	사회과학	이화숙	서경대	통일문제	전신욱
경희대	국제평화	손재식	서울대	사회과학	권태환
고려대	평화	조정남	시립대	법률행정	박용찬
관동대	동북아평화	유삼열	서원대	사회과학	신용철
국민대	사회과학	배규한	선문대	평화사상	박홍순
군산대	현대이념	고용권	성균관대	사회과학	김정우
단국대	정책과학	김성윤	성신여대	사회과학	최민자
대구대	사회과학	김연기	세종대	통일문제	김영식
대구효성카톨릭대	현대사상	이학수	숙명여대	통일문제	이창신
대전대	동북아	지길홍	순천대	사회과학	김인선
동국대	안보	강성윤	순천향대	사회과학	문제우
동신대	민족통일	최영표	숭실대	사회과학	문수언
동아대	사회과학	박동국	신라대	국제지역	이병화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아주대	사회과학	김영래	조선대	동북아문제	이창현
안동대	사회과학	김옥암	중부대	평화통일	이부훈
안양대	복지행정	송준호	중앙대	민족발전	이상만
여수대	통일문제	류명걸	진주교대	초등교육	박정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문정인	창원대	사회과학	주정연
영남대	통일문제	김태일	청주대	국제협력	윤만근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전도웅	충남대	통일문제	윤기관
우석대	한국정치	김영선	충북대	사회과학	강형기
울산대	사회과학	이은우	한국외대	사회과학	김만기
원광대	통일문제	김용욱	한남대	사회과학	이봉철
이화여대	한국여성문제	이상화	한림대	한림과학원	현승중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백낙서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송광성
인천대	평화통일	정광하	한성대	동아시아	이우관
인천교육대	통일교육	이근철	한세대	통일문제	강명희
인하대	국제관계	백광일	한신대	평화	김창락
전남대	아·태 지역	지병문	한양대	통일정책	최성철
전북대	사회과학	김영정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황오연
전주대	사회과학	박창수	호서대	통일문제	채경석
제주대	동아세아	김부천	홍익대	동서문화	전   웅



# 〈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숍 개최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일 자	발표주제(발표자)	참여 교수
'95	11.10~11.11 (경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외교 (한승주, 고려대)</li> <li>•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방향 (신창민, 중앙대)</li> <li>• 세계화시대의 북한경제와 변화전망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li> <li>• 북한문제강좌 교재개발 (김성윤, 단국대)</li> <li>• 통일문제 교재개발 (김영수, 제주대)</li> </ul>	68명
'96	11.15~11.16 (통일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서진영, 고려대)</li> <li>•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망 (이상만, 중앙대)</li> <li>•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엄재호, 경북대)</li> <li>• 북한연구의 방법 및 현황과 문제점 (채경석, 호서대)</li> <li>•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활성화방안 (민병천, 서경대)</li> <li>• 한반도 미래와 통일 (김덕, 전 통일부 장관)</li> </ul>	60명
'97	8.25~8.26 (전북 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김성윤, 단국대)</li> <li>• 북한경제의 현실과 남북 경제협력 (이영선, 연세대)</li> <li>•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최용기, 창원대)</li> <li>• 미·중의 대남북한 정책 (황오연, 호남대)</li> <li>•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방향 (노태구, 경기대)</li> <li>• 통일한국의 영역과 위상 (김영선, 우석대)</li> </ul>	70명
'98	12.16 (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의 전략환경과 한반도 문제 (신정현, 경희대)</li> <li>• 북한의 대내외 정책 (심정창, 중국 북경대)</li> <li>•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통일정책 (이세기, 국회의원)</li> <li>• 북한의 남북한 통일정책 (진용산, 중국길림성 동북아연구소장)</li> <li>•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과 통일 (이태영, 한세대)</li> <li>• 미국의 동아태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백종천, 세종연구소)</li> </ul>	70명
'99	8.20~8.21 (군산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시대의 지방정부 (채경석, 호서대)</li> <li>•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과 자치단체의 역할 (주정연, 창원대)</li> <li>• 남북 교류협력의 새패턴 (박홍순, 선문대)</li> <li>• 동서독, 남북예멘의 지자체 협력 사례 (김태일, 영남대)</li> <li>• 중국과 대만간의 지방정부 및 민간교류의 현황 (노태구, 경기대)</li> <li>• 서해안 지역개발과 한·중·북간의 지자체 협력 (김영선, 우석대)</li> <li>• 한반도 연안어업과 어장 및 양식여건 (군산시 인사)</li> <li>• 남북 지역단체간의 결연과 어업 협력방안 (고용권, 군산대)</li> </ul>	1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중 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1987년부터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실태 등을 살펴보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고, 1998년부터는 판문점과 백령도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입상공모 권장 주제	응모자	입상자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화와 통일의 과제</li> <li>· 분단 50년과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li> <li>·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안</li> <li>· 범민족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li> </ul>	49개대학 115명	7명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해·교류협력과 민족 공동체 형성</li> <li>·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 여건 조성</li> <li>· 분단국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li> <li>· 세계화와 통일대비교육 방안</li> <li>· 주변4국과 통일문제</li> <li>· 북한의 대미·일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li> <li>· 통일·북한관련 내용의 자유 논제</li> </ul>	54개대학 100명	9명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li> <li>·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전망</li> <li>·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향</li> <li>·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li> <li>·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li> </ul>	56개대학 109명	9명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정부의 대북정책 발전방향</li> <li>· 남북화해·협력의 걸림돌과 그 제거방안</li> <li>·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li> <li>·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체제 강구방안</li> <li>·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li> <li>·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활성화 방안</li> <li>·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li> <li>· 남북한 관계분석과 관계개선방안</li> </ul>	64개대학 121명 (대학원생 포함 응모)	9명 (2인공동 입상1편)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관계전망</li> <li>· 남북한 신세대 의식구조 동질화 방안</li> <li>· 정보화 시대의 남북간 협력방안</li> <li>· 대학생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향</li> <li>· 남북한의 정치·군사부문 신뢰구축 방안</li> <li>· 남북관계 개선과 정경분리 원칙</li> <li>·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li> <li>·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방안</li> </ul>	49개대학 87명 (학부생만 응모)	9명 (2인공동 입상1편)

### 3. 사회통일교육

#### 가. 초청·순회교육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사회통일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과정·통일요원과정·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강사, 중등교사, 교장·교감, 대학교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통일요원과정은 통일행정관리요원, 통일행정실무요원, 통일교육요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은 통일이전·과정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및 통합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문제 관련 지식,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분야별 통합과제 등의 내용을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2~3주이다.

이 과정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중·고교 사회·도덕·윤리과 교사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통일요원의 인적자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간부, 통일단체간부, 대학생, 방북예정자(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 교육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 등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의지를 높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 여론 선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1999년 5월 14일 부터는 승선후 선상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 <'99년도 초청·순회교육 실적>

(1999.12.31 현재)

과정 및 반		대 상	기 간	계획(명)	실적(명)	비율 (%)	횟수 (실적/계획)
전문 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반	통일교육전문위원	3일	450	382	85	5/5
	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	2~3일	1,040	1,160	112	10/10
	사회교육기관강사반	사회교육기관강사	3일	180	164	91	3/3
	사회교육기관장반	사회교육기관기관장	3일	50	39	78	1/1
	중등교사반	중등교사	3일	1,080	1,013	94	12/12
	교장·교감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3일	405	363	90	5/5
	대학교수 연찬반	대학교수	3일	250	292	117	4/4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2~5급)	3일	270	237	88	3/3
		신임사무관	2일	20	23	115	1/1
		보안경찰직공무원	3일	90	88	98	2/2
		교정·교회직공무원	3일	180	179	99	4/4
		통일부공무원	5일	45	26	58	1/1
		정훈장교	3일	90	83	92	2/2
		정부관련기관간부	3일	150	101	67	2/2
	소 계		2~5일	4,300	4,150	97	55/55
교류 협력 과정	남북교류협력반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예정자	1~2일	2,500	3,744	150	62/52
통일 요원 과정	통일행정관리요원반	공무원(4~5급)	3주	232	170	73	6/6
		정부관련기관간부	3주	38	19	50	2/2
	통일행정실무요원반	공무원(6~7급)	2주	770	723	94	9/9
	통일교육요원반	윤리·도덕·사회과 중등교사 및 교육전문직	3주	360	346	96	4/4
	통일대비교육 이수자반	통일대비교육 이수자	3일	300	172	57	2/2
	소 계		3일~3주	1,700	1,430	84	23/23
특별 과정	지방자치단체반	지방자치단체반 (시장·군수·구청장)	3일	40	80	200	2/2
	사회단체간부반	노동조합간부	3일	225	328	146	6/5
		종교단체간부	2일	240	102	43	2/2
		여성단체간부	2일	90	143	159	4/2
	통일단체간부반	통일관련단체간부	2일	580	581	100	8/7
	대학생반	대학재학생	3일	800	581	73	7/7
	자원교육반	사회각계인사	1~2일	425	1,909	449	35/10
소 계		1~3일	2,400	3,724	155	64/35	
합 계			1일~3주	10,900	13,048	120	204/165
순회 교육	국 내	대학생, 도서·오지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교사 등	1일	19,760	20,637	104	110회
		금강산 관광객	1일	(385,000)	(52,732)	(14)	144회
	해 외	미국, 일본지역 등 거주교포		240	260	108	1회
	소 계			20,000 (385,000)	20,897 (52,732)	104 (14)	255회
총 계			1일~3주	30,900 (385,000)	33,945 (52,732)	110 (14)	459회

## 나.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통일교육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민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2절 통일홍보

### 1. 국내 홍보

#### 가. 홍보책자 발간 배포

통일부는 1970년 8월 창간된 월간 「국토통일」을 시작으로 통일 정책의 내용과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노력해왔다.

또한 대북정책과 남북간 주요현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해교전 사태 등 주요 계기 발생시마다 이에 대한 해설자료를 수시로 발간·배포하였다.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세대별, 계층별로 특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만화 「점프」와 홍보리플릿 「뿌리생각」을 발간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등 신세대층에게 배포하였다.

이어 1999년 7월에는 포용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간,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포용정책의 추진 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포용정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모아 정부입장을 설명한 문답집 「포용정책은 안보와 협력입니다」를 발간·배포하였다.



### <주요 홍보자료 발간현황>

자 료 명	연도	발간부수	비 고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98	442,000	팸플릿, 리플릿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	22,500	팸플릿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5,000	팸플릿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실무안내	"	500	책 자
남북이산가족교류협력 절차안내	"	10,000	리플릿
통일교육지원법제정, 왜 필요한가	"	400	책 자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	"	6,500	책 자
통일문답 100	"	16,000	책 자
'98통일문제이해	"	11,000	책 자
'98북한이해	"	11,000	책 자
북한 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	100	책 자
'99통일문답	'99	20,000	책 자
'98 통일백서	"	6,000	책 자
통일부 30년사	"	1,200	책 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	"	500	리플릿
'99 통일문제 이해	"	20,000	책 자
'99 북한문제 이해	"	20,000	책 자
남북경제협력사업 실무안내	"	2,000	책 자
대북정책 1주년 자료	"	5,000	팸플릿
대북정책 홍보만화 「점프」	"	20,000	책 자
대북정책 홍보만화 「뽀리생각」	"	35,000	리플릿
대북정책 기본해설서	"	8,600	책 자
포용정책 문답집	"	44,000	책 자

또한 남북관계 및 국제안보환경 관련 중요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2년부터 「통일속보」를 발간해왔다. 1999년도에는 「북한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결과」, 「남북차관급당국회담결과」, 「페리보고서 내용」 등 7종의 통일속보를 북한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정부는 통일·대북정책 및 북한실상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73년 슬라이드 「민족통일의 길」을 시작으로 각종 시청각자료를 제작·보급해 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녹음해설 테이프(5,300개)와 비디오 테이프(3,850개)를 제작·배포하였다.

## 나. 방송을 통한 홍보

대중매체가 지니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전달력을 활용하여 대북정책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추진성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라디오와 TV 및 신문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오고 있다.

### ＜방송을 통한 홍보현황＞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1월	'99년도 북한 신년 공동사설 관련	정보분석국장
1월	KBS 인터뷰	교류협력국장
1월	MBC 라디오 '뉴스광장' 이산가족문제	장 관
1월	KBS TV '남북의 창', 새해전망	장 관
1월	MBC, 남북 당국자 대화추진 관련	차 관
1월	YTN '집중조명(신년대담)'	장 관
1월	iTV, 금강산 관련	차 관
1월	MBC 라디오 '격동30년', 분단의 벽을 넘는 사람들	차 관
1월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차 관
1월	KBS 2TV '추적60분', 탈북자 그 후	인도지원국장
1월	MBC 라디오, 신년특집(장관과의 대화)	장 관
1월	KBS 제1TV '뉴스광장', 탈북자 관련	인도지원국장
1월	iTV 민간차원 대북지원방향	인도지원국장
1월	KBS '추적60분', 탈북자 정착지원 등	장 관
1월	MBC '다큐스페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인도지원국장
2월	평화방송 '평화포럼', 탈북자- 그 현황과 대책	인도지원국장
2월	KBS 제1라디오 '박찬숙입니다'	인도지원국장
2월	KBS 1TV '시사포커스', 햇볕정책 1년	장 관
3월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양원입니다'	장 관
3월	K-TV 오늘의 국정, 남북화해협력 중점과제 보고	통일정책실장
4월	iTV, 금강산 관련	교류1과장
4월	K-TV 오늘의 국정, 남북 경협과 교류 관련	교류협력국장
4월	KBS 제1TV, 김일성 87회 생일행사 관련	분석관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4월	KBS-TV 비료모금 출연	장 관
4월	MBC-TV 비료모금 출연	장 관
5월	KBS 1TV, 북한인민계획법 등 해설	분석심의관
5월	K-TV, 대북 포용정책관련 인터뷰	정책국장
5월	KBS 1TV ‘뉴스라인’, 신인장관과의 기획대담	장 관
6월	KBS 1TV ‘시사토론’ 출연	장 관
6월	MBC, 대북비료지원 성금모금 특별생방송	장 관
7월	YTN ‘정치광장’, 험난한 남북대화 커지는 이산고통	차 관
7월	KBS 1TV ‘시사포커스’, 험난한 남북대화 커지는 이산고통	차 관
7월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	차 관
8월	K-TV 남북관계 관련 토론	교류협력국장
8월	MBC 라디오 ‘아침을 달린다’, 남북공동수해방지 사업 관련	공보관
8월	CBS 라디오, 남북공동수해방지 사업관련	공보관
8월	KBS 1TV ‘일요신문’, 북한미사일 등 최근 남북관계	차 관
8월	KBS ‘일요스페셜’ 인터뷰, 남북노동자 축구대회관련	교류서기관
9월	CBS ‘뉴스레이다’, 이산가족문제 관련	인도지원국장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미전향장기수 문제 관련	인도지원국장
11월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경수로건설관련	경수로부장
11월	KBS 라디오 특집다큐멘터리 ‘남북교역 어디까지 왔나’	교류총괄과장
11월	K-TV, IMF 이후 남북관계	정책총괄과장
11월	교육방송 ‘생방송 난상토론’, 북한 위성TV 허용관련	정책심의관
12월	MBC, ‘PD수첩’ 프로그램 협조	이산가족과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관련 CBS 인터뷰	장 관
12월	CBS 뉴스레이다	사무국 부장

시기	방 송 명	출 연 자
12월	아리랑TV 기획특집다큐멘터리 인터뷰	교류심의관
12월	KBS 라디오 신년특집 인터뷰	차 관
12월	K-TV, 통일로 가는 길, 새천년 통일한국 전망	차 관
12월	KBS 1라디오, 국회속기록	교류협력국장
12월	K-TV, 신년 인터뷰	차 관
12월	YTN, 2000년도 남북관계 전망	차 관

1994년부터 KBS사회교육방송를 통해 북한주민 및 중·러지역 동포들에게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해 오고 있으며, 현재 「통일열차」에 통일교육원 교수와 통일부 실무자 등이 출연하고 있다.

또한 1998년 6월부터 CBS 라디오방송의 「통일로 가는 길」 및 인천TV의 「통일마당 남남북녀」와 K-TV 등 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설명하였다.

특히 1999년 10월에는 EBS-TV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대북포용정책 해설 특집 제작을 지원, 4회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였다.

#### 다.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PC통신, 인터넷, 전광판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왔다.

1992년 7월 6일 천리안을 시작으로 하이텔, 유니텔 등 PC통신에 「통일·북한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간 북한동향,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보도자료, 북한영화상영안내, 통일정책관련 자료 및 최근 통일관련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사이버매체의 특성을 살려 특정현안에 대해 네티즌들이 토론을 벌일수 있는 장으로서 1996년부터 PC통신 전자공청회를 매년 개최해왔다. 1999년의 경우 3차례 PC통신 전자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총접속건수가 48,418건에 달했다.

### <PC통신 전자공청회 개최현황>

기 간	주 제	접속건수
'98.5.1~5.31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간 평화·화해·협력	3,104
'98.7.26~8.31	남북문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하나요	6,466
'98.10.8~10.30	남북교류협력과 금강산 관광사업	6,000
'98.12.1~12.20	대북정책 및 경수로 재원부담	8,034
'99.3.9~3.31	대북포용정책 어떤 성과가 있나요	10,612
'99.7.9~7.31	내가 만약 북경당국회담 대표라면	18,530
'99.10.4~10.23	쉬리와 페리 이야기	19,272

전자공청회 개최로 PC통신의 주된 이용자층인 신세대들에게 정부의 대북정책과 추진성과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편 통일부는 1996년 12월에 통일부 홈페이지 「UniKorea」(<http://www.unikorea.go.kr>)개설하여 통일·대북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과 최근 남북관계 현안 및 주간북한 동향 등을 국·영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9년말 현재까지 약 3년간 총 40여만명이 이용하였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자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Unibook」(<http://unibook.unikorea.go.kr>)을 운영하고 있다.

Unibook에는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북한자료와 통일문제 관련 자료에 대한 목록 및 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주요 행사’, ‘자유 게시판’, ‘묻기전에 보세요’ 코너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살펴 볼수 있다. 1998년 12월 개통된 이래 지난 1년간 총이용자수가 5만여명에 이른다.

그리고 1970년 이후 1999년까지의 남북회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회담진행경과와 회담결과를 국민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남북회담사료 홈페이지 「Dialogue」(<http://dialogue.unikorea.go.kr>)를 1999년 10월에 개통하였다. 30년간의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남북한 통일·대화제의비교 등 각종 남북대화 관련 자료가 국·영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 라. 시설물을 통한 홍보

통일부는 국민들의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북한관」의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관은 1986년 개관한 서울북한관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말 현재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00만명이(1999년 422만여명)이 관람하여 통일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관에서는 최근 북한의 실태, 남북한 주요현안,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소개하는 전시패널, 터치스크린, 멀티비전 등 영상 매체와 함께 북한의 생활용품 716종류 8,071점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오두산 통일전망대(경기도 파주군)의 경우 관람객들이 북한의 땅과 주민생활상을 목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분단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첨단시설들이 갖추어질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돕기 위해 북한의 신문, 도서, 화보를 구비한 「북한자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특수자료를 열람하거나 대출할 수 있으며 북한영화와 북한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1999년 12월

말 기준으로 63,683건의 일반자료와 16,327건의 특수자료 등 총80,010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1999년 한해 이용자 수는 25,827명이었다.(총 누계 인원 : 117,797명)

## 북한관 현황 (11개)

1999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위 치	연락처	개 관 일	운영기관	전시내역	휴관일
오두산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88 (통일전망대내)	(0348) T945-3171 F945-3172	'92.9.8	동화진흥 (주)	패널: 50점 실물: 1,153점	연중 무휴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236 (자유회관내)	(051) T808-7960 F807-0625	'89.1.30	자유총연맹 부산지회	패널: 122점 실물: 628점	연중 무휴
인천	남구 송의4동 8-7 (수봉공원 자유회관내)	(032) T868-0113 F868-0116	'94.12.15	자유총연맹 인천지회	패널: 59점 실물: 629점	월요일
광주	북구 운암동 164-1 (중외공원내)	(062) T525-7722 F528-0001	'89.3.10	통일교육 전문위원 광주협의회	패널: 120점 실물: 699점	월요일
청주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72-13 (우암어린이회관내)	(0431) T256-5050 F220-6742	'93.2.23	청주시 우암 어린이회관	패널: 77점 실물: 649점	월요일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68-2 (탐라자유회관내)	(064) T751-0191-2 F751-0193	'93.12.18	자유총연맹 제주지회	패널: 51점 실물: 863점	연중 무휴
고성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 (통일전망대내)	(0392) T682-0885 T682-0088 (FAX겸용)	'88.6.15	통일관광 (주)	패널: 54점 실물: 582점	연중 무휴
임진각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482-3 (임진각경내)	(0348) T952-7575 (FAX겸용)	'91.1.25	(주) 임진각	패널: 60점 실물: 500점	연중 무휴
철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4리 20-1 (철의삼각전적관내)	(0353) T455-3129 F450-5438	'90.12.15	철원군청	패널: 55점 실물: 568점	화요일
양구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2리 (편치불지구)	(0364) T481-9021 (FAX겸용)	'96.8.14	양구군청	패널: 64점 실물: 789점	화요일
경남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 (자유회관내)	(0551) T282-2332-3 F281-3950	'98.4.29	자유총연맹 경남지회	패널: 150점 실물: 858점	월요일



## 2. 해외 홍보

###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과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는데 힘써 왔다.

먼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해설자료 등을 영·일·중국어 등 주요 외국어로 발간, 외국의 주요 기관 및 여론 지도층에 배포하였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1998년 7월 격월간으로 시작한 영문 뉴스레터 「Korean Unification Bulletin」을 1999년부터는 월간으로 발간 횟수를 늘여 해외 정부기관 및 저명학자, 해외공관 및 동포사회 지도층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인 평화문제연구소와 남북평화통일연구소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통일한국」과 「Korea and World Affairs」를 각각 발간하여 해외 동포와 외국 연구기관,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다.

한편, 10개 국어로 방송되는 KBS 국제방송 ‘통일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 <국제사회 대상 홍보자료 발간 현황>

(1999년 12월 현재)

구 분	연 도	형 태	자 료 명	부 수	비 고
정 기	'91~'97	격월간 및 계간지	Information Service	매호600	영어
	'98	월간	Korean Unification Bulletin	매호2,000	"
부정기	'93	팸플릿	Korea's Unification Policy	15,000	"
		리플릿	Question of Korea Unification	25,000	영·일
	'94	팸플릿	A New Track for Unity	2,000	영어
		리플릿	Coming Together as One	25,000	"
	'95	단행본	A New Track for Unity 등 2종	1,500	"
	'97	팸플릿	An Analysis of The Food Situation in North Korea	4,000	"
			What We Shall Do for Our Unification	6,000	"
	'98	팸플릿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8,000	"
			韓國新政府の 對北韓政策	9,000	일어
			韓國新政府 對北韓政策	4,000	중어
			Politica hacia Corea del Norte del Gobierno del Pueblo	3,500	서반아어
	'99	단행본	Kim Dae-jung's Policies on North Korea	2,000	영어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3,000	영어
		팸플릿	平和と和解・協力のための 對北韓政策	2,000	일어

## <민간단체 해외홍보자료 발간 현황>

(1999년 12월 현재)

단 체 명	연 도	간 기	자 료 명	부 수
평화문제연구소	'89~현재	월간	통일한국	매호8,000
남북평화통일연구소	'81~현재	계간	Korea and World Affairs	매호1,000

## 나. 해외동포에 대한 통일홍보

550만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해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15개국 47개 동포 신문사·방송사에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겨진 의미와 정당성 및 호혜적 협력사업의 이점 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1991년부터 매년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미주지역 동포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1999년에는 제9차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제7차 미주지역 통일문제포럼을 미국 달라스, 휴스턴, 호놀룰루에서 개최하였다.

###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개최 현황>

(1999.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91.9.13	서울	15개국 262명	21세기를 향한 한민족공동체의 나아갈 길
제2차	'92.8.18~19	사할린	11개국 154명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
제3차	'93.9.20~23	서울	17개국 336명	신한국 창조와 조국통일의 과제
제4차	'94.8.5~7	연변	10개국 25명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 전망
제5차	'95.8.16~17	서울	14개국 650명	통일·번영의 한민족시대 전망
제6차	'96.11.21~23	동경	13개국 250명	한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이해
제7차	'97.9.5~6	서울	16개국 300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 유도
제8차	'98.8.17~19	샌프랜 시스코	10개국 120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해외동포사회의 역할
제9차	'99.10.1	서울	6개국 100명	포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과 과제

### <미주지역 통일문제 포럼 개최 현황>

(1999.12.31 현재)

구 분	개최일	장 소	참가인원	대 주 제
제1차	'93.11.5~6	미국 L.A	150명	새로운 국제정세하의 문민 정부의 통일과제
제2차	'94.12.1~2	미국 뉴욕	150명	동북아시아 신질서와 향후 남북한 관계
제3차	'95.12.7~8	미국 L.A	200명	광복 50년, 통일과 한민족의 미래
제4차	'96.8.29	캐나다 토론토	120명	신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제5차	'97.10.6~9	미국 시애틀 캐나다 몬트리올	100명 85명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대책방향
제6차	'98.8.20~22	캐나다 밴쿠버	110명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제7차	'99.10.28~11.3	미국 달라스, 휴스턴, 호놀룰루	560명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현황

### 3. 행정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8년 1월 시행된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통일부도 국민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통일부가 만들어 보유중인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고 정보공개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문서평가심의회」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다.

통일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구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주요정책사항, 유관법령내용, 각종 간행물 및 행정자료, 통일부 조직안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통일부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현황>

(1999. 1월 ~ 12월)

청 구	처 리 현 황				비 고
	소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 공 개	
9	9	5	4		이의신청 : 1건(기각)

\* 부분공개 사유는 법령상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영업상 비밀 또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 및 정보의 부존재 등임.

## 제3절 국민의견 수렴 및 민간통일활동 지원

### 1. 여론조사 실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1999년에도 남북차관급 당국회담, 금강산관광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및 경수로건설 지원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정부는 이와같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여 국민여론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계기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서해교전사태 및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때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 '99 여론조사 실시 결과 >

(1999.12.31 현재)

구분	일자	대 상	주 요 내 용
1차	1.12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중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70.3%가 적절하다고 평가</li> <li>-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59.8%가 긍정적인 평가</li> </ul> </li> </ul>
2차	1.13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중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71.1%가 적절하다고 평가</li> <li>-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83.5%가 긍정적인 평가</li> </ul> </li> </ul>
3차	3.13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추진방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지원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대해 88.4%가 적절하다고 평가</li> <li>- 남북현안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84.9%가 지지</li> </ul> </li> </ul>
4차	5.1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80.3%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li> <li>- 특히 북한을 이해하는데 76.2%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li> </ul> </li> </ul>
5차	10.2	일반국민 1,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북정책 추진방향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북한 관계의 진전 대해 66.0%가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li> <li>-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70.0%가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평가</li> </ul> </li> </ul>

## 2. 자문기구 운영

###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의 종합, 평화 통일 의식의 고취, 그리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11월 28일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그 기능에 맞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9년 5월 19일 새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는 강원룡 의장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들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여론 수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19~20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대전(5.19~20), 광주(9.8~9), 부산(9.29~30), 전주(10.20~21), 청주(11.2~3), 춘천(11.19), 제주(12.9~10) 등 8개 지역에서 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 ＜ 통일고문 명단 ＞

(1999.12.31 현재)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원룡(의장)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강만길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강문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
김대중	조선일보 주필
김민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수환	추기경
김영준	전 농림부장관
김종하	전 대한체육회 회장
김진현	문화일보 사장
김창열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박종화	세계선교협의회 중앙위원
변형윤	제2건국추진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
서영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성 명	소속 및 직위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안무혁	전 안기부장
오재식	월드비전 회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이병형	성우회 부회장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전 정부2장관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장
장기천	전 KNCC 통일위원장
장 상	이화여대 총장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조영식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최명헌	전 노동부장관
최영철	전 통일원장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위원을 재위촉하고 있다.

###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1999.3~2000.2)

성 명	직 책
이상우(위원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명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학준	인천대 총장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웅서	고려합섬그룹 대표이사 사장
안병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기평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세희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장정행	대한매일 논설위원
최상용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황병무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장

## 다. 정책자문위원회

중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1999년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교육홍보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1999.8 ~ 2000. 7)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교육홍보 분과위 (7명)
유병화 (위원장 : 고려대 교수)	도홍렬 (위원장 : 충북대 교수)	이장춘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	백충현 (위원장 : 서울대 교수)	신정현 (위원장 : 경희대 교수)	박찬세 (위원장 : 배제대 교수)
권민웅 (前 북한문제 조사연구소 자문위원)	홍승길 (관 동 대 교수)	최대권 (서울대 교수)	이상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김구섭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정세구 (서울대 교수)
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원장)	강성윤 (동국대 교수)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주간)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오재립 (숙명여대 교수)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8명)	인도지원 분과위 (7명)	남북회담 분과위 (8명)	교육홍보 분과위 (7명)
장명봉 (국민대 교수)	연하청 (명지대 교수)	정진성 (서울대 교수)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국제법제 연구실장)	안병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김동규 (고려대 교수)
이원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전홍택 (KDI 연구조사실장)	신영호 (고려대 교수)	고유환 (동국대 교수)	문용린 (서울대 교수)
박상섭 (서울대 교수)	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	김경량 (강원대 교수)	최대석 (동국대 교수)	김용호 (한림대 교수)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정영화 (서경대 교수)	김영수 (서강대 교수)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위원)	김문환 (서울대 교수)
노경수 (서울대 교수)	류길재 (경남대 북한 대학원 교수)	전일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유종숙 (동방기획 부국장)					
전득주 (숭실대 통일정책대학 원장)					

### 3. 민간통일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계기로 활발해졌고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1998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212개 통일운동단체들이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가 결성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반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9년 8월 15일 민화협에서 개최한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손잡기 대회」는 통일관련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행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문제 관련 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 단체는 1999년 12월 말 현재 총 73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또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장관 표창·상장 수여, 통일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통일관련 자료 배포 등 지원이 있었다.

## 제4절 북한자료개방 추진

### 1. 북한자료 공개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1990년 3월부터 서울 북한자료센터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상영해 온 북한영화를 1993년부터는 부산, 광주 등 지방으로 확대하였으며, 대학생 단체 관람 등 일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수시 상영도 하고 있다. 북한영화는 1999년 한해동안 132회를 상영하여 13,991명이 관람을 하였다. (누진 총계 : 521회 47,485명)

또한 1989년부터 통일·북한문제 전문가와 북한 이탈주민을 초청, 북한정세 및 북한주민생활 등에 대해 토론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1999년 한해동안 20회 4,662명이 참가하였으며, 1999년 12월 말까지 누진된 총횟수는 203회, 참가자는 14,057명이었다.

1999년에 들어 북한자료중 비이념적인 성격의 자료를 선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단계로 1999년 3월에 북한정기간행물 151종 2,694건중 61종 576건을 공개하였고, 2단계로는 1999년 12월에 북한 단행본 4,249권을 공개하였으며, 3단계로 2000년에 북한영상자료에 대한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최첨단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주요 북한 원문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을 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회담자료 DB 등 관련 DB와 연계도 추진하는 등 북한정보자료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2.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방송매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대중매체이다. 만약 남북한주민들이 상대방의 방송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나아가 북한 바로알기를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방송의 단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북한이 대남비방 방송을 중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방송을 일방적으로 개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북한이 1999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타이콤 위성을 통한 북한 중앙TV 위성방송을 시험방송하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본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10월 22일 부터 북한 위성TV 방송에 대한 시청을 허용하였다.

우선 방송사 등 언론사에 북한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국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시설(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이번 북한 위성TV 방송 시청 허용 조치는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충분히 성숙되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향후 정부는 북한방송의 개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국민의 북한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방송 개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